

보낸 쪽지 09/26 01:43

니가 나한테 말하는게 맞겠다 그러면

받은 쪽지 09/26 01:42

지구 생물 근데 이걸 훑어보면알수있는거아냐?

보낸 쪽지 09/26 01:42

목요일 수업 뭐야 우리

받은 쪽지 09/26 01:41

다 아는거야 그정도로..? 음ㅠㅠ어떻게 증명하지? 나한테 뭘 물어봐!

보낸 쪽지 09/26 01:40

너 실과인거 연기하는거 같은데? 증명해봐

받은 쪽지 09/26 01:40

몰라도 되는..거야? 아니 실과면 다 아는거 아냐?ㅠㅠㅠ너도 너 실과지? 그리고 바로..나만 모르는거 같아ㅠㅠ 언제 들은거야?

보낸 쪽지 09/26 01:38

모르는게 나올것 같은데 이렇게 커질줄은 나도몰랐다

받은 쪽지 09/26 01:33

난 21인데...21 일이 아닌가 그럼? 선배님이신가요..?

받은 쪽지 09/26 01:32

왜...

보낸 쪽지 09/26 01:28

하..

받은 쪽지 09/26 01:27

어제 들은얘기야? 나 어제 밖에 너무 안나가긴했어...그래서 못들은건가..

받은 쪽지 09/26 01:25

나 실과긴한데...못들은 얘기라서..나만 못들은건가봐 그럼ㅠㅠㅠ많이 아는 얘기야? 왜 난 모르지..

보낸 쪽지 09/26 01:24

너 실과지? 개 정상맞냐? ㅋㅋㅋㅋㅋㅋ 내양심은 아니라더라

받은 쪽지 09/26 01:23

아 아니그냥...다들 실과라고 하길래 궁금해서...비난하려던 의도는 아냐! 그렇게 느껴졌다면 미안ㅠㅠ

보낸 쪽지 09/26 01:20

왜

받은 쪽지 09/26 01:15

너 실과야?

보낸 쪽지	09/26 01:51
걱정하지마	
보낸 쪽지	09/26 01:51
20~30 사이 아니야?	
받은 쪽지	09/26 01:51
앗 맞추지마.....	
보낸 쪽지	09/26 01:49
너 누군지 알것같은데..?	
받은 쪽지	09/26 01:49
내 착각일수도 있어..! 이런생각 많이해서 혼자ㅠㅠ	
보낸 쪽지	09/26 01:48
우리과 그렇지않은데..	
받은 쪽지	09/26 01:48
나만 동떨어지는 느낌 요새 받고있었어서..	
받은 쪽지	09/26 01:48
엄~~청 많이 아는 이야기야? 난 이게 제일 걱정돼ㅠㅠ	
보낸 쪽지	09/26 01:47
너는 왜 궁금한건데?	
받은 쪽지	09/26 01:46
다같이 들은거야...?난 왜ㅠㅠ	
보낸 쪽지	09/26 01:46
그거는 못말해줘	
받은 쪽지	09/26 01:44
언제 들은거야ㅠㅠㅠㅠ?	

보낸 쪽지

09/26 02:07

지금 모를때 얘기해요 지금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받은 쪽지

09/26 02:07

누구야 너 진짜ㅋㅋㅋㅋㅋㅋㅠㅈㅈ 어떻게 알았지...

보낸 쪽지

09/26 02:05

뭐가 고민인데요 뭐 싸운거 있어요?

받은 쪽지

09/26 02:04

아ㅠㅈㅈㅠㅈㅠㅈ너 나 진짜 아는것같아ㅠㅈㅈㅠ

보낸 쪽지

09/26 02:04

근데 평소랑 좀 많이 다르네요.. 걱정이 왜 많아요..

받은 쪽지

09/26 02:03

다행이다...다행이라고 생각해도 돼?

보낸 쪽지

09/26 02:02

근데 저도 혼자만 하는 생각인것같아서 에타에다가 말하는거

보낸 쪽지

09/26 02:01

다하는 얘기는 아니고 넘어가면서 했던 얘기라서 많이는 모를것같은데요. 뭐 다른데서 얘기 더 하고 다녔을수도있죠

받은 쪽지

09/26 01:58

난 비슷한 것도 못들었는데ㅠㅈㅈ

받은 쪽지

09/26 01:58

요새 나말고 다 하는얘기야..?

보낸 쪽지

09/26 01:56

근데 어디까지나 저거는 내생각이고 님도 들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수도 있죠

받은 쪽지

09/26 01:55

음ㅠㅈㅈㅈ 많이 아는 얘기야 ? 너무 걱정돼 진짜

- 보낸 쪽지** 09/26 02:18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죄송해요
-
- 받은 쪽지** 09/26 02:17
난 너 좋은데...
-
- 보낸 쪽지** 09/26 02:16
여기서 말해요 저도 지금 일이 커진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양심지키기가 힘들어요
-
- 보낸 쪽지** 09/26 02:16
죄송해요 그거는 제가 못할것 같아요
-
- 받은 쪽지** 09/26 02:15
나 속애기 절대못하는데 지금 너무 털어놓고싶어
-
- 받은 쪽지** 09/26 02:15
나랑 통화해주면안돼..?제발
-
- 보낸 쪽지** 09/26 02:15
여기서 끝까지 얘기해요 여기서 있었던 일은 여기에 묻기로 해요
-
- 받은 쪽지** 09/26 02:14
나 미친것같아 왜이러지..?
-
- 받은 쪽지** 09/26 02:14
너 누구야? 나랑 통화해주라
-
- 보낸 쪽지** 09/26 02:12
어떤점이요? 착하시잖아요
-
- 받은 쪽지** 09/26 02:12
내가 너무 나쁜사람같아서..
-
- 보낸 쪽지** 09/26 02:11
어떻게 하드시데요?

보낸 쪽지

09/26 02:31

이미 말했어요? 너냐고?

받은 쪽지

09/26 02:30

의심한거....진짜.....

받은 쪽지

09/26 02:30

의심한거..

보낸 쪽지

09/26 02:29

어떻게 더 힘들어요 오해하게 만드신게 아니면 의심한게 ?

받은 쪽지

09/26 02:29

내가 모를까봐 걱정돼서 그런것도아니고..나일까봐 그게 걱정돼서 너한테 물어본거야...내가 이런애야. 진짜 죽어버리고싶다 정말.....

받은 쪽지

09/26 02:27

나 왜 이모양 이꼴인지 모르겠어.. 의심부터하고, 남탓하고..

받은 쪽지

09/26 02:26

그래서 내가 어장친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토할거같아서..근데 그분이 정말 착하신분이라서 너무 죄책감들었는데 혼자 생각하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과 사람 딱 세명한테 말했는데 너 글보고 나라고 생각했어..그런데 내가 진짜 쓰레기같은게 그 세명중에 한명이 썼구나 싶어서 의심부터하고있었어

받은 쪽지

09/26 02:25

사실 나도 얼마전에 다른과 사람한테 고백받았거든...근데 내가 진짜 나쁘게 거절했어. 그리고 그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오해할 소지 정말 많이줬던거같아..

보낸 쪽지

09/26 02:21

번호몰어볼때 눈치 챘잖아요

받은 쪽지

09/26 02:20

나 이윤지인거 아는거지? 다른사람 착각할까봐

보낸 쪽지

09/26 02:20

왜그렇게 생각해요

보낸 쪽지

09/26 02:20

미안할거 없어요

받은 쪽지

09/26 02:20

사실 나 진짜 쓰레기거든 진짜 세상나쁜사람이야

받은 쪽지

09/26 02:19

내가 울고싶어서 떴잖아봐 미안..

받은 쪽지

09/26 02:19

그러네..

- 보낸 쪽지** 09/26 02:58
왜그랬어요 나도 처음에 못믿었어요
-
- 받은 쪽지** 09/26 02:56
그냥 내가 만났으면 안됐는데 만났고, 장난치면 안되는데 장난쳤고, 그랬어...
-
- 받은 쪽지** 09/26 02:53
그냥 마지막에 얘기했을때 정말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서 진짜 소름끼칠정도였거든..
-
- 받은 쪽지** 09/26 02:52
나한테 고백하신 분 말하는거면 잘못 없지..
-
- 받은 쪽지** 09/26 02:51
어떤 사람?
-
- 보낸 쪽지** 09/26 02:50
내가 진짜 오지랴인데, 그사람은 무슨잘못이예요?
-
- 받은 쪽지** 09/26 02:49
지나가면 아무일도 아닐거야..
-
- 보낸 쪽지** 09/26 02:45
맞아요 지금도 스트레스예요 이혈줄 몰랐어서
-
- 받은 쪽지** 09/26 02:44
너도 스트레스받았으니까 이런글 쓰지않았겠나싶어서...진짜 오지랴이었어...!!
-
- 보낸 쪽지** 09/26 02:44
먼저 얘기해줘요
-
- 받은 쪽지** 09/26 02:42
너도 내 얘기 몰라줄거니까 나도 모를게! 미안 너무 물어봐서..엄청 곤란했지 미안해ㅠㅠ 그냥 나도 털어놨으니까 니얘기도 털어놓으면 좋지않겠나 싶어서...
-
- 보낸 쪽지** 09/26 02:41
저 등준이 아닌데 그냥 모르면 안될까요
-
- 받은 쪽지** 09/26 02:33
내가 목에 칼이들어와도 남 비밀 지키는거 그게 내가 가지고있는 유일한 삶의 모토거든
-
- 받은 쪽지** 09/26 02:32
나 믿어 등준아 아무한테도 말 안해 그냥 위로받고싶어서..
-
- 받은 쪽지** 09/26 02:32
아니길 바라고 너한테 물은거야
-
- 받은 쪽지** 09/26 02:31
아니...알겠지만 내가 간이 작아서...

보낸 쪽지

09/26 03:11

제가 누군지 왜 알고싶으신건데요? 과에서 이미지 때문에?

보낸 쪽지

09/26 03:10

안될것같아요

받은 쪽지

09/26 03:10

의심하고싶지않아 진짜로...

받은 쪽지

09/26 03:10

이제 누군지도 좁혀졌는데 전화로하면 안될까..?제발..나 너무 부끄러운일이고 그래서 이야기로하고싶어...진짜 빌게...

보낸 쪽지

09/26 03:09

제 양심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일이에요

받은 쪽지

09/26 03:08

이해 할게..진짜로..

보낸 쪽지

09/26 03:08

이해 못하실거예요

받은 쪽지

09/26 03:08

뭐가..?

보낸 쪽지

09/26 03:08

도저히 못견뎌서요

받은 쪽지

09/26 03:07

너 원망 안해 진짜로

받은 쪽지

09/26 03:07

근데 왜 지금 말한거야..? 많이 지났는데..

받은 쪽지

09/26 03:06

계속 생각하고있었던 미안해서...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하는거 들키면 내가 잘못된것처럼 될까봐 그렇게 말 안했어

받은 쪽지

09/26 03:05

당연히 아니겠네 내가 동준이한테 말 안했으니까..

보낸 쪽지

09/26 03:05

나 동준이인줄 알고 있는것 같아서 말하는데 나 동준이 아니예요 진짜

보낸 쪽지

09/26 03:04

할말 해야되는건 해야되서 미안해요 이렇게 빨리 바로 알아버리는건 몰랐어

받은 쪽지

09/26 02:59

...? 게시글 내애기 쓴거야..?

보낸 쪽지

09/26 03:28

제가 뭐라도 되는건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받은 쪽지

09/26 03:28

넌 익명이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해줘 나 지금도 그래보여? 그분한테 고백받고나서 남자동기들한테나 다른 남자들한테 행동 너무 자연스레하지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보낸 쪽지

09/26 03:28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되는거잖아요..

받은 쪽지

09/26 03:25

근데 그분이 마음을 표현하시니까 덜컥 그 생각들이 나더라? 그래서 그분 너한테 말할때는 되게 나쁘게 말한것같아 그분 뿐만아니라 여기저기 다 흘리는것처럼 보이게될까봐

받은 쪽지

09/26 03:24

맹세코 몰랐어 만날때는..애초에 두번밖에 안만났으니까

받은 쪽지

09/26 03:23

내가 워낙 웃음 해프고 장난끼 많고 하잖아... 근데 그걸 그냥 똑같이 해버렸어. 친한 사이에서는 그게 그냥 장난이지만 한 두번 만난 사이에서는 특별한 의미일수 있는데 그걸 몰랐어

보낸 쪽지

09/26 03:22

아니라구요 3명 아니라 다른사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누가 누군지는 저한테 제발 그만 물어주세요 지금도 스트레스예요

받은 쪽지

09/26 03:22

교직에나가서도, 평생 같이지내고싶어 진짜로..그래서 전화하고싶어

받은 쪽지

09/26 03:21

진짜 니가 나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너 정말좋거든...

받은 쪽지

09/26 03:20

은아야..?나 진짜 전화로 얘기하고싶어..

보낸 쪽지

09/26 03:18

착한거랑 이거랑 다른문제라고 생각해서요

받은 쪽지

09/26 03:16

근데 왜 나 착하다고했어..?

보낸 쪽지

09/26 03:13

제가 물어볼게요 왜 그랬어요 저는 이해가 안되서요

받은 쪽지

09/26 03:11

그거랑 남은 둘때문에...

받은 쪽지

09/26 03:11

아니라고는 못하겠고..

받은 쪽지

09/26 03:44

당연히 다른문제지

받은 쪽지

09/26 03:43

다른사람말고 너말이야..난 니가 좋은거야.. 니가 그렇게 생각한것도 이해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더 세게 말한거고..

보낸 쪽지

09/26 03:42

저게 내 주변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보낸 쪽지

09/26 03:42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있죠 다 좋아하니까 동기라서 챙기니까 근데 이건 저한테는 다른문제라고 생각이 되서요

받은 쪽지

09/26 03:40

내 행동에 실망한거라면 나 너무 후회하고있어 진짜..

받은 쪽지

09/26 03:38

나 정말 내가 평생 갈 사람이라고 생각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해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진짜 이기적인데 나 안싫어하면 안될까...?나 정말 너무 좋아해 너..

보낸 쪽지

09/26 03:37

네

받은 쪽지

09/26 03:35

왜냐면 부산까지 오는거니까..

받은 쪽지

09/26 03:35

그냥 만나자고 했을때 그러자그랬던거부터 상대는 아 애가 좋아서 나오나? 이렇게 착각할 여지를 충분히 준거같아..

보낸 쪽지

09/26 03:33

어떻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데요

보낸 쪽지

09/26 03:33

제가 다 아는것도 아니고 뭘 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낸 쪽지

09/26 03:32

이거요

받은 쪽지

09/26 03:31

어떤 마지막..?

보낸 쪽지

09/26 03:30

애초에 그렇게 행동하는건 아니었고 마지막도 왜 그렇게 본인 자존감만 생각하는게 아니었나 생각했어요 저는

받은 쪽지

09/26 03:29

내가 그 고백받은 분한테 어떻게 행동한 부분이 잘못이라고 느껴졌어..? 정말 고치려고 물어보는거야 넌 말해줄수있으니까

받은 쪽지 09/26 04:02

몰라..

보낸 쪽지 09/26 04:00

우리과인거 사람들 아는데 얼마나 걸린지 알아요?

보낸 쪽지 09/26 03:58

네

받은 쪽지 09/26 03:58

너는 어떻게 대할까..? 아무렇지 않게 대할까 아니면 거리를 둘까..? 나 싫어할수도 있잖아 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해도 괜찮아?

받은 쪽지 09/26 03:57

그럼 사과해야겠다.

보낸 쪽지 09/26 03:56

진심으로 사과하면 안받아줄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사람 지금까지 입다물고 있는거 생각하면 더

받은 쪽지 09/26 03:55

너라면 어떨 것같아?

받은 쪽지 09/26 03:54

갑자기 연락와서 근데 그때 이렇게 행동해서 미안하다보 하면 난 너무 싫을것같아서..

받은 쪽지 09/26 03:54

내가 그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게 그사람입장에서는 두번죽이는거같을수있잖아 더 선긋는것처럼 느껴질수있고...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굳이 꺼내서 연락하는게 상처를 헤집는거랑 다르게 없는거같아서

보낸 쪽지 09/26 03:52

사과하는게 무서워요? 아니면 하기가 싫으신거예요?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받은 쪽지 09/26 03:50

니 얘기들으니까 사과하고싶은데 사과하면 안되겠지..?

받은 쪽지 09/26 03:48

응...

보낸 쪽지 09/26 03:47

님이 얘기할때 사람이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말했어도 그정도인데 상대방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받은 쪽지 09/26 03:46

정말 계속 생각해왔어

받은 쪽지 09/26 03:45

안다니까...쪽 알아왔어

보낸 쪽지 09/26 03:45

그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문 크게 안도는게 이상할정도에요 아시죠?

보낸 쪽지	09/26 04:26
네	
받은 쪽지	09/26 04:24
내가 고민해볼게	
보낸 쪽지	09/26 04:22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혼자서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받은 쪽지	09/26 04:21
나는 그래서 사과를 일단 하려고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낸 쪽지	09/26 04:20
저라서 특별한게 아니라 왜 지금 이런지 계속 위로 따라가면서 생각해보세요 과연 동기들 눈치보고 이미지 생각하는게 더 중요한가 생각이 들어요	
받은 쪽지	09/26 04:19
무슨 생각?	
받은 쪽지	09/26 04:17
너랑 대화하면서 진짜...많이 부끄러웠어	
보낸 쪽지	09/26 04:17
앞에서는 그렇게 뒤에서는 이렇게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받은 쪽지	09/26 04:17
지금 메모장에 어떻게 사과할지 쓰고있어. 내일 중으로 사과하려구..	
받은 쪽지	09/26 04:14
내가 얘기한 애들 다 맞장구쳐줬어...그런의도로 한 말 아니야	
보낸 쪽지	09/26 04:14
누군지 맞추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받은 쪽지	09/26 04:10
나 때문에 고민하게해서 미안해..왜 내가 너한테 말했을때 그건 언니잘못이라고 말 안했어..? 그때 나 맞장구치느라 힘들었겠다 너...	
보낸 쪽지	09/26 04:09
저는 아직도 그사람이 이해가 안되요 왜 아무한테도 말 안했는지 왜 그리고 이 상황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야	
받은 쪽지	09/26 04:07
그렇네..	
보낸 쪽지	09/26 04:05
다른얘기 없는거봐서는 후자인거 같아요	
보낸 쪽지	09/26 04:04
3시간도 안걸렸어요 물론 알고 말한건지 요즘에 관심 많이 받으니까 얻어걸린건지는 몰라도	

받은 쪽지

09/28 00:13

앗 그래그래..! 이미 충분히 고마웠어..

보낸 쪽지

09/27 23:45

말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님이랑 엄청 친한사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미안해요

이말을 왜 할지말지 고민했는지는 님이 더 잘아실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만 제 양심대로 오지랖을 부린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님이 친하다 생각한 그 친구들한테 도움받아주세요

죄송해요

받은 쪽지

09/27 10:06

너 스트레스 주려는거 아니고...!! 당연히 거절해도 괜찮고 답장 안해도돼! 그냥 내가 부탁하는거니깐..ㅎ

받은 쪽지

09/27 10:04

아무래도 얼굴보고 하는건 부담스러울테니까...새벽내내 너랑 얘기하면서 너는 분명히 나랑 친한 사람일텐데, 내가 친한사람한테만 얘기했으니깐, 어떻게 이렇게 바르고 곧게 생각할수있을까 너무 닳고싶었어. 아무리 친해도 다른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할수 있는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학교다니는동안 니가 생각하는거 듣고싶어.

받은 쪽지

09/27 10:01

그리고, 이건 이기적인 부탁이긴 한데 앞으로도 우리 얼굴봐야하니까..내가 잘못하거나 하면 혹시 쪽지로 이번일처럼 나 혼내줄수있어?

받은 쪽지

09/27 09:52

너 때문이 아니라, 덕분에 사과한거야. 선택은 내가했는데, 너 덕분에 이렇게 하는게 맞겠다는 확신이 들었어.

받은 쪽지

09/27 09:51

원래 나는 두번 만나서 밥먹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고백받고, 연락오고 전화오고 해서 부담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어. 말했다 시피 만나서 별 일도 없었으니깐. 한 주에 두번 밥먹고, 그게 얼굴 본 다였는데 한달을 힘들어 할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 이기적이었던거지. 그런데 너 덕분에 어제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되게 말했는지, 그것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더라. 내가 이사람을 꼬셔서 재미봐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절대 없었지만,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수습은 않고 상처만 떠넘겨준거같아.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만나서 길게 얘기하는거, 나는 상상도못해. 덕분에 용기내서 만났고, 사과하고 서로 오해도 풀고 그럴 수 있었어. 진짜 고마워.

보낸 쪽지

09/27 03:31

아니에요 저한테 안고마워하는게 맞아요 선택은 님이 하신거니까요

보낸 쪽지

09/27 03:30

우리때문에 사과한거 아니죠..?

받은 쪽지

09/26 19:52

불편하면 답장 안해도돼! 그냥 그렇다구 말하는거야...!! 나때문에 스트레스받게해서 미안..

받은 쪽지

09/26 19:51

너 덕분에 방금 만나서 오래 얘기하고 제대로 사과하고왔어. 잘못된거 잘못됐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 누군지 진짜 알고싶은데...ㅠ모를게..! 나랑 어제 새벽까지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받은 쪽지

09/26 04:27

늦었는데 자...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말해줘서 고마워.

보낸 쪽지

09/29 01:05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받은 쪽지

09/29 01:04

그런데 또 내가 걱정했다는걸 알게 되면 그게 또 여지가 되는거고, 그래서 괜찮냐고 묻지도 못하겠고 너무 복잡해서 잠이 안와 요즘..

받은 쪽지

09/29 01:02

물론 당연히 사과했었어야했고,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과한건 후회안해. 그런데 내가 괜히 정리되고있는 그사람한테 사과해서 그게 또다른 여지를 주게 된건 아닌가..? 그게 또 나중에 그분께 상처가 되진 않을까 싶어서 너무 복잡해..

받은 쪽지

09/29 00:58

복잡해.....

보낸 쪽지

09/29 00:45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후련해지셨나요 아니면 후회 되시나요

보낸 쪽지

09/29 00:44

저한테 안고마워 하셔도 됩니다. 님한테 대놓고 글 쓴게 아니어서 저렇게 표현이 거칠고 무식하게 적어놓았는데, 저러면 절대 우리과 못찾을줄 알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점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받은 쪽지

09/28 02:18

응응 고마웠어!!!

보낸 쪽지

09/28 02:00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한 말을 읽어봐도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네요 님이 스스로 잘알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쪽지

09/28 01:36

미안한 일 없게끔 할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고마웠어.

받은 쪽지

09/28 01:35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어. 앞으로의 일은 물론 내똥이겠지. 그러니까 부담갖지마..

보낸 쪽지

09/28 01:31

님이 그사람한테 사과한게 그사람한테는 과연 잘 한 일인지 오늘 또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진짜 더 이상 님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게 어려울것 같아요

사과 이미 하셨으니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그 사람 대하는건 스스로 생각을 깊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기들 때문에 억지로 사과를 한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진심에서 나온 사과라면 그사람한테 다시는 미안하지 않게 하면 좋겠네요

보낸 쪽지

09/28 01:26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님보다 얼굴 모르는 그사람이 더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글 쓴거였는데

받은 쪽지

09/28 00:14

넌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될거야. 많이 고마웠어. 이것도 답장안해도돼!

받은 쪽지

09/29 01:17

더 복잡하게 만들었네 내가..ㅠㅠㅠㅠㅠㅠ

받은 쪽지

09/29 01:17

조용하고, 배려심 많은사람인것같아.

받은 쪽지

09/29 01:16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르겠어. 알게된지 얼마 안됐고, 두번밖에 만난적이 없어서...그래서 어떻게해야할지 더 모르겠어.

보낸 쪽지

09/29 01:14

그사람이 어떤사람인지 알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받은 쪽지

09/29 01:13

그런데 내가 뭘 더 할수있을까..? 사과는 꼭 했어야하는 행동이지만 이제부터 내가 그사람한테 뭘 하면 그건 다 여지주는 거 아닐까..?

받은 쪽지

09/29 01:12

예쁘다 마음이

보낸 쪽지

09/29 01:11

오지람이죠 처음부터 시작한 제 오지람때문이에요

받은 쪽지

09/29 01:10

왜?

보낸 쪽지

09/29 01:10

저도 어제 연락 더이상 안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할것같아서요

받은 쪽지

09/29 01:09

진짜 모르겠다..

받은 쪽지

09/29 01:08

이미 도움 넘치게 받았는데 난..

보낸 쪽지

09/29 01:07

그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도 말을 못드리겠네요

받은 쪽지

09/29 01:06

내가 결정한거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꼭 사과했어야했어..

받은 쪽지

09/29 01:05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절대아니야..!!!

보낸 쪽지

09/29 01:05

제가 괜한 말 한것 같고 죄송하네요

받은 쪽지

09/29 01:43

그분이 앞으로 만나면 인사는 하고 지내자고 했고, 알겠다고 하고 헤어졌어.

받은 쪽지

09/29 01:42

처음에는 무거운얘기하다가, 사과하고 이런저런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분이란 막 농담하기도하고 웃긴얘기도 하고 편하게 근황얘기도 하고 헤어졌어.

보낸 쪽지

09/29 01:40

그때 사과하신 이후에는 어땠어요

받은 쪽지

09/29 01:36

어떻게 생각해?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받은 쪽지

09/29 01:36

사실 나는 이게 그분과 나의 관계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나는 뭘 더 하면 절대 안되는거고, 한달전에 거절했고 하니까 그분이 감정이 식을수있게 난 가만히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낸 쪽지

09/29 01:33

지금 당장 드는생각은 어떻게 하고싶으세요

받은 쪽지

09/29 01:32

그런것같아

보낸 쪽지

09/29 01:31

감정을 밖으로 절대 안내비치는 사람인것 같네요 이야기 들어봤을때는

받은 쪽지

09/29 01:30

음...딱히 이상한점 없었어. 평소랑 똑같았어.

보낸 쪽지

09/29 01:30

가장 최근이요 사과하셨다 했을때

받은 쪽지

09/29 01:29

사과할때?

보낸 쪽지

09/29 01:29

아 저번에 만났을때요

받은 쪽지

09/29 01:28

만났을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부산 가는데 만나자고 할 때는 좀 특이했지..?

보낸 쪽지

09/29 01:26

그사람이 좀 특이하다 싶은점이 느껴졌어요? 만났을때?

받은 쪽지

09/29 01:21

따로 밖에서 만나는 여자인 친구는 몇명 있는것 같더라고

보낸 쪽지

09/29 01:19

주변에 여자가 많은지는 아시나요?

받은 쪽지

09/29 02:11

아 없었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마음은 없어!

받은 쪽지

09/29 02:09

어쨌든 난 저렇게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

받은 쪽지

09/29 02:08

특히나 내가 한번 상처 준 상대니까...

받은 쪽지

09/29 02:08

난 마음없이 걱정 많이해...그냥 있는걱정 없는걱정 다하는편이야..ㅋㅋㅋㅋ

보낸 쪽지

09/29 02:06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이 없이 다른사람을 걱정한 적이 없어서 지금 이순간에 왜 걱정을 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보낸 쪽지

09/29 02:05

그당시에 님이 그사람한테 마음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하신거라고 생각해요

받은 쪽지

09/29 02:00

요새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미치겠어..

받은 쪽지

09/29 02:00

나는 여우짓 하는사람들 쓰레기라고 생각해왔는데 내가 한 행동들이 그런 여우짓으로 해석될줄 몰랐거든.. 한동안 엄청 충격먹고 내가 싫었어. 또 그럴까봐 계속 생각하게돼. 그분걱정도 되고, 내가 또 그런 쓰레기짓 한거일까봐 걱정도 돼

받은 쪽지

09/29 01:57

이미 한번 의도랑 다르게 그분께 상처를 준적이 있어서, 그게 걱정되는것같아. 이번에도 의도랑 다르게 해석될까봐..

받은 쪽지

09/29 01:56

그런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왜이럴까..

받은 쪽지

09/29 01:56

정확하게 말할수 있는건 그분께는 마음이 없었어.

보낸 쪽지

09/29 01:50

너무 착하셔서 그런건지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사람이 너무 안쓰러웠는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님 생각을 아는게 먼저일 것 같아요

보낸 쪽지

09/29 01:48

제가 이해하고 싶은 부분은 그 이후에 그사람이 괜찮은지 님이 걱정하는 이유예요

보낸 쪽지

09/29 01:48

저는 애초에 그사람이 불쌍해서 글 쓴건 맞긴해요 그리고 님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셨고 또 했다고 하셨어요

받은 쪽지

09/29 01:44

괜찮아 보인다고해서 속까지 괜찮은건 아니겠지만...

받은 쪽지

09/29 02:21

나중에 임용치고나서는 누군지 말해주면 안돼? 내가 잘할게..!

보낸 쪽지

09/29 02:20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 오지랖인데요

받은 쪽지

09/29 02:18

내 고민 들어주고, 혼내주고, 진짜 너무고마워..이렇게 받기만해도 되는지모르겠다.

받은 쪽지

09/29 02:16

고마워 진짜.. 진짜진짜 고마워

보낸 쪽지

09/29 02:16

괜찮아요

보낸 쪽지

09/29 02:16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받은 쪽지

09/29 02:15

그런데 너 나때문에 이렇게 늦게자도 괜찮은거야..? 현수이는..?

받은 쪽지

09/29 02:14

모르지..! 다행이다..내가 워낙 최악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보낸 쪽지

09/29 02:13

네 근데 생각보다 그사람이 괜찮을수도 있어요 괜찮은지 안괜찮은지 확실히 아시는거예요?

받은 쪽지

09/29 02:12

그분 감정이 식을수있게 가만히있는거..

보낸 쪽지

09/29 02:12

어떻게 하시는지요?

받은 쪽지

09/29 02:35

잘 지내고 행복하기만해 😊

받은 쪽지

09/29 02:34

오지랴이어도 고마웠어..! 우유부단하기 짝이없는 나를 결심할수있게 해줘서 고마워.

받은 쪽지

09/29 02:33

고마웠어...

보낸 쪽지

09/29 02:33

아네 알겠네요 이제 일단락 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받은 쪽지

09/30 00:05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수도있겠구나... 나는 사과가 관계의 마지막이되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낸 쪽지

09/30 00:03

님이 진심으로 그사람한테 미안해서 그사람한테 사과한거면 님이 너무 착하고, 또 다른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본거겠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우리 동기를 보기가 미안해서, 님 스스로가 불편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사과한거라면 그 사과는 잘
못된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셨겠지만 어제 그사람이랑 이제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셔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그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그사람이 들었다 생각하면 이번에 사과받았는데 얼마나 황당할까? 싶은 생각이 들 것같아
서요

물론 저는 지금 님이 너무 복잡한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님 정말 힘들것같아요 힘내세요

받은 쪽지

09/29 23:55

무슨말이야..?

받은 쪽지

09/29 23:55

미안해 진짜...ㅠㅠ

보낸 쪽지

09/29 23:55

마지막으로 제할말 하고 저도 더이상 안보내려고 했었어요 그건 걱정안하셔도될것같아요

받은 쪽지

09/29 23:53

할말 뭐야..?

받은 쪽지

09/29 23:53

너무 미안한데, 내 상황이 그래..ㅠㅠ 앞으로는 실수안하고 누구도 절대 상처안주도록 혼자 수백번생각할게. 정말 미안
한데 나 이 쪽지 더이상 못하겠어... 쪽지왔다는 진동만와도 손이떨려..진짜 너무미안해 아무리 오지랴이라고 너 스스로 그
렇게 말해도 나 도와준건데..ㅠㅠ내가 그릇이 너무 작아...

받은 쪽지

09/29 23:50

사실 내가 요새 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걱정이 산더미같았기도 했고, 너는 내가 누군지 어떤 걱정을하는지 다 아는데 나
는 너에 대해서 모르잖아. 익명인 주변인이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
테, 내 깊은얘기 다 털어놓은것도 힘들었어..난 너 누군지 계속 몰라야하니깐, 어제 일 끝나고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싶
어서 차단한거야.

혹시 괜찮다면, 오늘 너 하고싶은말 하고 우리 쪽지 그만해도될까..? 하루종일 생활하면서 얘가 쪽지한건가? 엔가? 쟤가?
계속 하루종일 그 생각하게되고, 어디다 털어놓지도 못하고 정신병걸린사람처럼 굴게되는것같아서..

받은 쪽지

09/29 23:15

기분 안나빠했음좋겠어..ㅠㅠ 근데 할말 뭐야?

받은 쪽지

09/29 23:14

나는 그냥 이제 끝났다싶어서 연락 안올줄알고 그런거야..!

받은 쪽지

09/29 23:13

엇 왜왜...?? 할말 뭐야??

받은 쪽지

09/30 00:17

이제 진짜 차단할건데 진짜 너 싫어서 그런거 정말아니야 내가 미쳐가는거같아서...진짜 너무미안해ㅠㅠㅠ 안녕...

받은 쪽지

09/30 00:16

고생은 니가했잖아ㅠㅠㅠㅠㅠㅠ

보낸 쪽지

09/30 00:15

이제 끝이에요 고생했어요

받은 쪽지

09/30 00:15

고마워...

받은 쪽지

09/30 00:15

잘지내..! 너는 좋은사람이니까 좋은일만 가득할거야. 고맙고 미안했어 안녕..

보낸 쪽지

09/30 00:15

고민은 남한테 해가 안될만큼만 하세요

받은 쪽지

09/30 00:13

내가 많이 고민할게. 지금보다 더 고민할게. 미안하고 고마워..

받은 쪽지

09/30 00:12

진짜 고마워. 이렇게 나 찾아서 저런말 해준것도..

보낸 쪽지

09/30 00:12

이번에도 제 오지랴이예요 이제 진짜 할말 다 했어요

받은 쪽지

09/30 00:10

고마워 많은 말 해줘서...

보낸 쪽지

09/30 00:07

이제 약속해요 사실 이번에도 남은 글을 쓸때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그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쓴거지 애초에님과 이렇게 쪽지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 저도 조심해서 다시는 이런일 없게 아예 글 쓰지 않기로 했어요 걱정하지마세요